

전국 땅값 122개월 연속 올라...상승률은 소폭 둔화

국토부·부동산원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 발표

작년 땅값 3.68% ↑ ...전년 3.92% 대비 0.24%p ↓

수도권 상승세 주춤 vs 세종 10.62% ↑ 급등세

거래량 역대 최고...국토부 "시장 과열 시 대응"

전국 땅값이 지난달까지 12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승률은 3.68%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가 변동률은 0.34%로 나타나 증가세를 이었다.

증가 폭은 전년 대비 둔화되는 추세다.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지

가 변동률은 0.96%로, 전년 같은 분기(1.01%) 대비 0.0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3.60%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 1.24%, 서울 1.22%, 대전 1.21%, 광주 1.04%, 대구 0.95%, 경기 0.95%, 인천 0.88% 순이다.

특히 부산 남구(2.36%), 부산 부산진구(2.07%), 경북 군위군(1.90%), 부산 해운대구(1.76%)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연간 변동률도 지난 2016년(2.70%) 이래 가장 낮았다. 연도별 지가 상승률은 2017년 3.88%, 2018년 4.58%, 2019년 3.92% 순이다.

지난해 전국 땅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36% 올라 전년(4.74%) 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4.80%로, 지난 2018년 이래 2년 연속(6.11→5.29%→4.80%) 상승폭이 감소했다. 경기(4.29→3.98%) 인천(4.03→3.76%) 등도 지난 2019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지방 땅값은 지난해 2.52% 올라, 전년(2.51%)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한 해 땅값이 10.62%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4.95%)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어 대전(4.58%), 광주(3.88%), 부산(3.75%), 대구(3.40%) 순으로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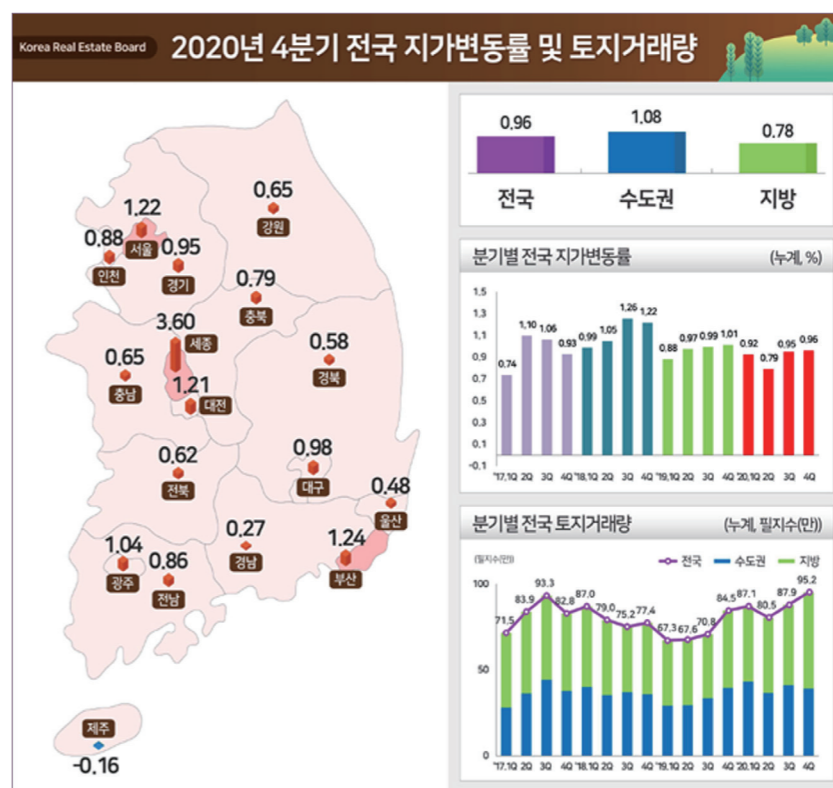
으며 제주(-1.93%)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가 오름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은 350만6113필지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필지 ▲2분기 80만5000필지 ▲3분기 87만9000필지 ▲4분기 95만2000만 필지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도 113만569필지로 역대 최고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2분기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였다 11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라면서 "토지가격의 변동률과 거래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작년 경제성장률 -1.0%

지난해 한국 경제가 1.0%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한은의 기준 전망치인 -1.1%를 상회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 역성장했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삼성 갤럭시탭 전용 카카오톡 출시...다중 로그인 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 3대에서 동시 로그인 가능

2019~2020년 출시 태블릿 대부분 카톡 지원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 탭' 사용자들도 편리한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탭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 태블릿을 지원하는 카카오톡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윈스토어에 등록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사용자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3대에서 동시 로그인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동시 로그인이 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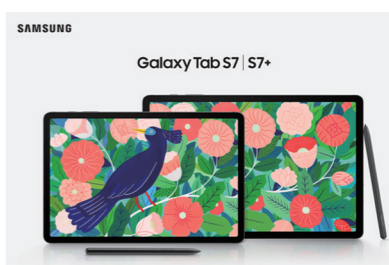
새로운 카카오톡은 지난 2019년~2020년 출시된 대부분의 갤럭시 태

블릿에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갤럭시 탭S7/S7+/S7+ 5G ▲갤럭시 탭S6/S6 5G ▲갤럭시 탭S6 라이트 ▲갤럭시 탭S5e ▲갤럭시 탭A7 ▲갤럭시 탭A 10.1 ▲갤럭시 탭A with S Pen 8.0 ▲갤럭시 탭A 8.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카카오톡 지원 모델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탭 S7/S7+ 원 UI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갤럭시 S21과 연동해 스마트폰에서 보던 웹페이지나 삼성노트를 갤럭시 탭S7의 더 큰 화면에서 바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를 활용해 통화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은 태블릿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도 있게 됐다.

갤럭시 탭S7+ 북커버 키보드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연동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이 밖에 윈도우PC와 연동해 갤럭시 탭S7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활용도 가능하며, 두 개의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거나, 똑같은 화면을 볼 수도 있다.

서선욱기자

나주배, 설 선물 인기 "주문은 느는 데 물량 부족"

출하물량 65% 감소...평년 대비 가격 2배 이상 전망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 지역 과수 농가들이 밀려드는 설 명절 선물 주문에 한 겨울 선별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상저온과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물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26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지역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나주배 물량은 약 936t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물량은 지난해 출하 물량(2735t)보다 약 65% 감소한 규모이다.

나주 지역은 지난해 배 개화기 전후인 3월말부터 4월 초 무렵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배 재배면적(1943ha)의 50%(972ha)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 이번 여파는 출하물량 감소와 성수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주배 대표 출하 품목인 신고배(특품·15kg상자 기준)의 경우 최근 공판장 경매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6만원에서 6만5000원 사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날부터 이틀 간 나주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나주배원협, 영산포 농협 등 선과장 7곳을 방문해 배 선별·포장 작업·유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성수기 원활한 출하를 당부했다.

나주시는 고품질 배 생산·유통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육조건 악화로 상품성이 떨어진 저품종과 330t을 가공용으로 수매해 시장 격리 조치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줬다.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총 58억원을 투입해 급전·노안농협의 노후화된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주배 명성 유지를 위한 고품질 배 선과에 애쓰고 있는 선과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배민+요기요 결제액, 작년 12.2조원 '역대급'...전년비 75% ↑

국내 1, 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지난해 결제액이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뛰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족이 늘면서 외식 배달을 선택한 이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한국인만 20세 이상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의 결제액이 1조44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연간 결제액도 지난해 12조2000억원으로 역대급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6조9527억원에 비해 75%에 증가한 것이며 2018년(3조9287억원)과

견줘서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와이즈앱은 이 수치는 10대의 결제 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한 수치여서, 측정에서 제외된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달 앱 시장규모는 더 크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수수료 아깝잖아"...외식업계,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박차

간편결제시장 규모 2019년 120조...지난해는 더욱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SPC·도미노피자·탐앤탐스 자체페이 개발 및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눈길'

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자체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네이버페이, 배달의 민족 등 타사 간편결제시스템, 배달 플랫폼으로 나가는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이를 고객 혜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주된 목표다.

고객의 경우 자체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외식업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2017년 39조9906억원, 2018년 80조1453억원, 2019년 120조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결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최소 10배 이상 뛰어올랐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비대면 주문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외식업계도 자체페이 개발은 물론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

스까지 자체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SPC그룹은 자사 멤버십 플랫폼 해피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해피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카게트, 베스킨라빈스, 단킨도너츠 등 전국 6300여 SPC그룹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원터치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결제와 포인트 적립을 따로 했지만 해피페이가 도입될 경우 해피포인트 적립 뿐 만 아니라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SPC그룹은 섀타나인을 출범했다. 섀타나인은 향후 해피포인트와 '해피오더·해피콘·해피마켓' 등의 모바일커머스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간편결제 솔루션 '해피페이'를 론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간편결제시스템 '도미노페이'를 리뉴얼했다. 2017년 4월 외식업계 최초로 선보인 도미노페이는 결제 정보를 최초 1회 등록한 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리뉴얼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더 빠른 주문이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도미노페이를 별도 결제 수단 영역으로 분리했고 결제 비밀번호 생략 기능을 추가했다.

도미노피자 간편 주문 서비스인 '퀵 오더'와 도미노페이를 함께 이용하면 두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도미노피자는 향후 계좌결제 기능을 추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 다.

탐앤탐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상자산 '탐앤탐코인'을 발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공식 어플리케이션 마이탐에 도입할 예정이다.

탐앤탐스는 탐앤탐코인을 자사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고객 보상용으로 활용해 편의성·다양성·투명성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마이탐에 도입·활용하고 향후 전국 탐앤탐스 오프라인 매장 및 해외 매장에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자체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에 즐거움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